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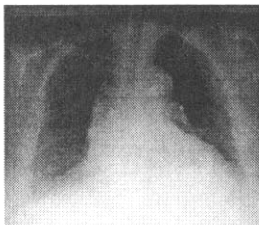
### 좌심방 종괴로 오인된 틈새탈장 1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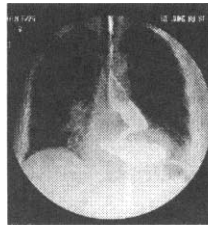
임철현\*, 장기욱, 김미경, 황은미, 강귀영, 조영석, 채현석, 송기배, 김재형, 홍순조, 최규보

서론) 심초음파는 심장내 종괴를 진단하는 유용한 진단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심장 주변 구조물이 심초음파에서 심장내 종괴와 유사하게 관찰될 수 있다. 연자들은 심초음파에서 좌심방 종괴로 관찰되었으나 탄산음료 복용 후 시행한 심초음파와 상부 위장관 조영술에서 틈새탈장으로 판명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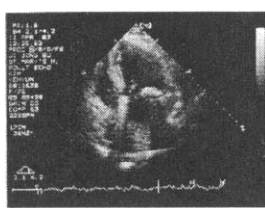
증례) 76세 여자 환자가 하부흉골후방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당뇨병과 만성 신부전으로 인근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로 심기능 평가위해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 좌심방에 5.26cm<sup>2</sup>, 14.2ml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환자의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심비대 및 공기-액체층이 관찰되었다. 환자에게 탄산음료를 복용시키고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좌심방 종괴로 관찰된 병변은 이전 심초음파에 비하여 고메아리 발생을 보였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위음부가 하부 식도 방향으로 상승되어 있었고 상부위장관 조영술에서 식도의 돌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위장이 흉곽으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이상의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심초음파에서 좌심방 종괴로 관찰된 병변은 틈새탈장으로 판명되었다. 환자는 약물 치료후 증상이 개선되었고, 고령인 관계로 수술적 치료 없이 외래 추적 경과 관찰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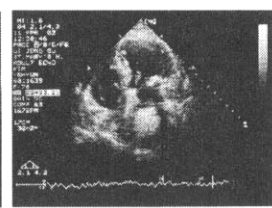
<Chest PA>



<UGIS>



<심초음파>



<심초음파, 탄산음료 복용후>

### 관상동맥중재술 후 발생한 우심방내의 혈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과학교실

박창욱\*, 김윤년, 김민정, 조윤경, 박형섭, 이영수, 현대우, 한성욱, 허승호, 김기식, 김권배

배경 :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전에 의해 뇌, 복강내 장기, 하지등지에 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관상동맥중재술의 합병증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관상동맥중재술 이후에 발생한 폐색전증 및 우심방내 혈전형성에 관한보고는 드물다. 저자들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우심방과 폐동맥에 생긴 다발성 혈전을 치험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74세 여자 환자가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고혈압 이외에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다. 입원 1병일째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85%의 폐색을 관찰하고 절망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절망삽입술 30분후 sheath는 제거되었고 8시간동안환자는 침상에서 절대안정을 취하였다. 절망삽입술 시행 25시간 뒤 갑자기 발한, 현기증, 전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활력증후는 혈압이 64/49mmHg 심박동수는 분당 60회로 측정되면서 심한 빈호흡이 관찰되었다. 당시 시행한 심전도상에서 저명한 ST분절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혈액학적 검사상 심근효소의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흉부 초음파상 폐동맥과 우심방에 다발성 혈전이 관찰되었고 우심실의 확장과 함께 우심실의 운동저하가 관찰되었다. 도플러를 이용한 폐동맥압은 58mmHg였다. 급성 폐색전증으로 진단 후 rt-PA를 이용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다. 혈전용해술 시행 21시간 후 시행한 추적 심초음파상 우심방과 폐동맥내에 혈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혈전 재형성을 예방하기위해 저분자량 헤파린을 7일간 피하주사 하였고 이어 Warfarin을 복용하면서 INR 2-3을 유지하였다. 환자 더이상의 혈전 형성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현재 임상증상 호전보이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